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vol.670
2024 JANUARY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70



물, 지방시대를 열다

FLOW

K-water 대전 이전 50년!
유등천을 따라 걷다

ON

물의 힘으로 빛나는
녹색신산업, 그린수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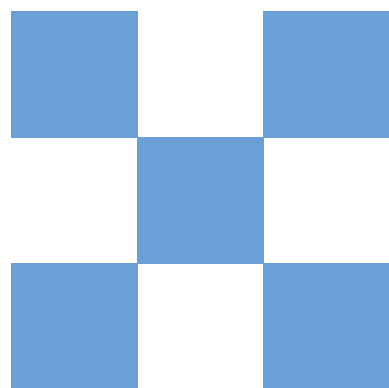
HOPE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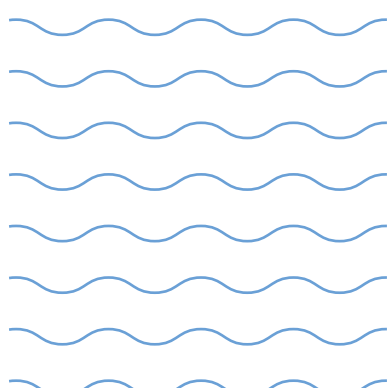
2024년 1월호



갑진년 청룡의 해,
K-water가 대전과 함께한 지 5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상생 협력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시대



Hello 2024



kwater__official



#kwater지방시대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지방시대를 검색하고 <#kwater지방시대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지방시대를 검색
→ <#kwater지방시대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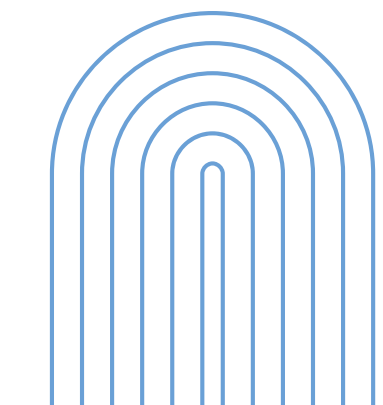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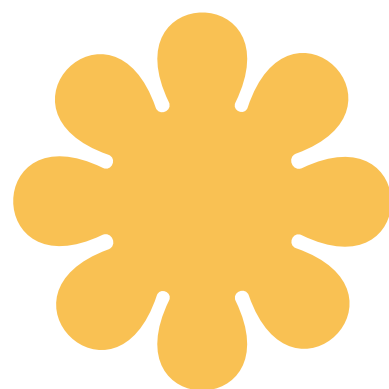
접수 마감일 1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10일경

※ 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그린수소



독자 참여 안내



마음상담소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건강물음표

물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물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응모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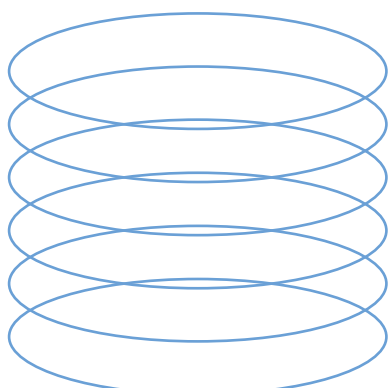
독자의 소리

사보 및 웹진을 읽고 난 뒤 여러분의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후기 및 원하시는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검색창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4 January Vol. 670



COVER STORY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 싶은 K-water의 마음을 담았다. 올해 1월호는 특별히 K-water 대전 이전 50주년을 기념하여 대전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표지를 장식했다. 갑천, 대전천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 중 하나인 유등천 물줄기를 따라 과학과 빵의 도시 대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4년 1월 1일
통권 670호 **편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FLOW

물과 함께 흐르다

대전 유등천에 깃든 삶과 사람, 여행

08 CEO MESSAGE

윤석대 사장 신년사

10 독자에게 듣습니다



14 물길 따라 걷다

버드나무 흐드러진
대전의 유등천을 따라 걷다

20 이야기로 물들다

로컬 문화 엿보기
빵과 과학의 도시, 대전 편

22 물처럼 살다

물길 따라 만난
대전 사람들

24 수(水)타백스가 간다

서로가 힘이 되는 대청댐지사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ON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든다

미래를 여는 기술, 그린수소



30 Insight ON

신재생에너지 그 중심에
'그린수소 에너지(Green Hydrogen Energy)'

34 ONterview

그린수소 미래를 여는 푸른 기업
BTE&지필로스

36 ON the world

그린수소로 만들어 나가는
청정 국가 스위스

40 ON전한 지구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인천 앞바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

42 ON 챌린지

딱 필요한 만큼만!
푸드다이어트 ON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K-water가 실현하는 지역상생 협력



44 K-water 리포트

지속가능한 로컬,
지역과 동행하는 K-water

48 K-water 포커스 ①

세계가 주목하는 K-water 기후대응 역량,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 성큼

50 K-water 포커스 ②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52 어느 멋진 날

함께라 더 행복한 우리들의 식탁

56 마음상담소

58 건강물음표

59 이슈체크

60 K-water News

62 문화산책

64 릴레이 챌린지

66 K-water SNS





사랑하는 K-water
가족 여러분! 사보 독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water 임직원 모두가 원하는 모든 일을 꼭 이루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맥락을 살피고 국민과 국가, 지역과 기업의 관점에서 K-water가 지향할 가치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안전, 역동, 공정'의 핵심가치를 실천할 것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혁신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속도감 있는 실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新경영 실편을 실천의 단계로 한 걸음 더 진화시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극한 기후와 산업 경쟁에 따른 물수요 급증으로 물관리 여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 또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도 요구됩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우리의 저력을 밑바탕으로 반드시 새로운 물의 시대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 원년이 될 2024년, 올해 추진해야 할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그랬듯이 완벽하고 빈틈 없는 물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냅니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 물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국민의 물재해 걱정은 덜어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 이·치수의 핵심인 물그릇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수자원 개발 경험, 상생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물그릇은 정비하도록 합니다. 대체수

자원 개발과 용수 공급망을 연결함으로써 예상되는 물 부족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에 양질의 산업용수를 공급하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면서 솔루션과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AI 홍수예보와 댐-하천 디지털트윈은 더욱 고도화하고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미래형 상수도 혁신도 본격 추진합니다. 물관리 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을 과감히 발굴하여 전 세계 최초, 최고의 디지털 K-water를 창조해 나갑시다. 깨끗한 물공급은 맑고 안전한 상수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녹조관리플랫폼과 오염원 저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K-water의 물환경 관리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더불어 지자체 상수도 지원과 취약 지역 물복지 확대에도 힘을 쏟아주길 당부합니다.

둘째, 새로운 물의 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갑시다. 오늘날 물은 기후위기 대응에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지키고 번영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물의 가치를 보다 높여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종합 솔루션과 디지털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민간에 지원하여 녹색수출 100조 달성의 선봉에 섭시다. 또한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공급을 확대해 기업이 녹색수출 장벽을 넘도록 돕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는 물특화, 탄소중립, 혁신기술이 결합된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공간과 새로운 도시 모델

을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K-water의 계획을 공론의 장으로 확산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본사, 유역본부, 그리고 현장부서가 협업하여 지역발전의 정책 아젠다를 포착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물기업으로 우뚝 섭시다. K-water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의 주목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사우디로 수출되고, 세계경제포럼은 화성 AI정수장을 전세계 물관리 시설 중 최초로 글로벌 등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최초'의 자부심과 '최고'라는 자신감으로 글로벌 무대에 본격 진출합니다.

*글로벌 등대(Global Lighthouse Network)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심사를 통해 선발

이 모든 출발은 경영체질을 튼튼히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설한 재무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재무 성과로 공기업 혁신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수도요금 동결 이행을 뒷받침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더 나아가 미래 新사업 발굴에도 힘씁시다.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은 혁신을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미래 핵심인재 육성으로 K-water 성장판을 키우고 기술 전략과 R&D 협력을 통해 초격차를 만들어 나갑시다. 기업의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기술과 실적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만 높아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안전과 청렴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 K-water 제도와 정체성으로 더욱 내재화시켜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ESG역량 확보와 품격 높은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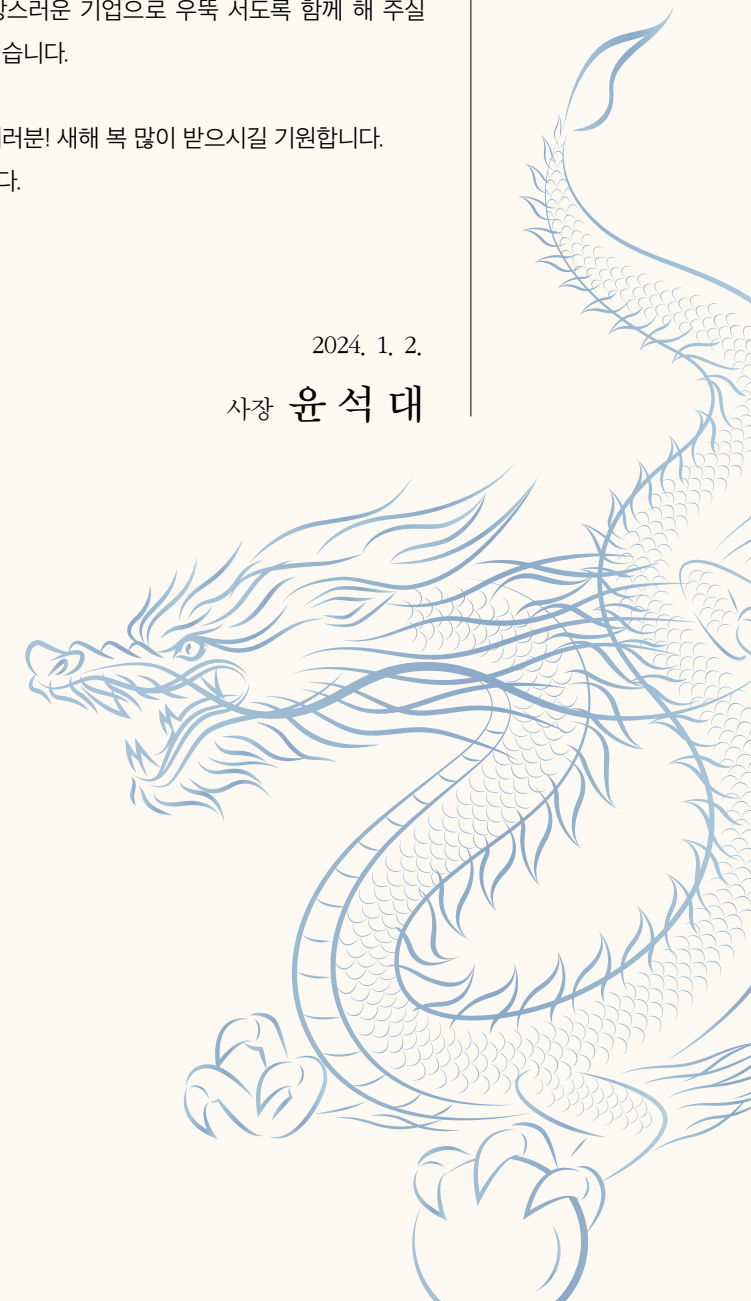
K-water 가족 여러분! 물은 언제나 빈 곳을 채우고 난 뒤 흐릅니다.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이 공백과 결핍의 공간을 채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2024년 새해에는 국민, 국민의 삶터인 지역과 국민의 일터인 기업까지 빈 곳이 어디인지 찾고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워나가도록 합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물속에서 자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로 비상하는 용처럼 2024년에는 우리의 도전과 열정이 응축된 '물'로 더 높게 도약하는 K-water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박기찬 위원장님이 이끄는 13대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파트너이자 상생의 협력자입니다. 서로의 새 마음, 새 뜻을 모아 희망과 행복의 한길로 전진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으로 정도경영의 원칙을 잡아주실 이삼규 상임감사위원님의 큰 역할도 기대합니다. K-water가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우뚝 서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2.
사장 **윤석대**



Happy New Year Message

한 해를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K-water에게 바라는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정리 편집실

설문 기간 | 2023년 12월 1일 ~20일

참여 | 응답자 153명

출처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12월호

올 한 해도 K-water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K-water를 통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퀴즈를 통해 국내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네요. 또 깨끗한 물을 생산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도 알게 됐고요.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는 K-water에게 올 한 해 고생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연○열님

사보 덕분에 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커졌어요^^ 아직도 깨끗한 물이 없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물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물을 아끼며 사용하렵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고,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봅니다.
-김○희님

2023년 한 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활력소가 되었지요. 또한 책을 읽으며 물과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환경보호에 나태해지려는 나를 채찍질하기도 했지요. 어려모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4년 내년에도 올해만큼만 알찬 소식을 전해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세요.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철님

2023년 한 해 K-water를 통해 국내외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독자 참여 기회의 확대, 다양한 지구환경보호 이벤트 등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향한 K-water의 신경영을 응원하며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K-water is KOREA Power!
-김○태님

K-water 사랑해!! 부지런히 달려왔으니 내년에는 더 행복하자♥♥♥ 2023년 다들 고생했으니 2024년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김○훈님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점이면 한 해를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돼요. 올 한 해 k-water에서 작지만 소소하게 삶의 풍요로움을 찾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물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송○원님

사보를 다 읽으면 가족들과 나눠서 보고 아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학급에 비치해서 읽기도 해요. 참 좋은 내용이라 매우 유익해요. 계절의 변화를 표지 통해서 더 실감나게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먹는 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려 줄 수 있어 좋아요.
-이○결님

1973년 소양강댐 건설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를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도시설 용량의 50% 가까이 책임지고 있는 K-water. 앞으로도 보편적인 물복지를 실현해주시고, 50%를 넘어 대한민국 수도사업을 100% 책임지는 최고의 물전문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규님

올 한 해도 <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알찬 내용들이 가득해서 일 년 내내 즐거움이 한가득이었어요~ K-water 여러분과 독자분들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셨기를 바라며 내년은 더욱 멋진 수자원 이야기들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강○호님

사보 덕분에 K-water는 어느덧 친숙한 이름이 되었네요. 세계는 물부족 그리고 오염된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K-water가 새로운 물의 시대를 이끌어 주시고 힘찬 도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K-water 임직원 여러분 파이팅!
-이○근님

치산치수란 말이 있듯이 수자원관리는 국가 기술력의 보고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물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선진 물관리 국가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자원 기술 강대국 실현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수자원공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윤님

아이들과 아빠가 일하는 곳의 사보를 보면서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2024년에도 여전히 굳건하길 바라고 사원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김○정님



* 선정된 30분께는 커피&디저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1월 10일경 발송) 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Hello, 2024!

해피뉴이얼, 해피리뉴얼

사보 책자 및 웹진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2024년을 맞아 새롭게 리뉴얼 되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2024 Concept

Flow On Hope

새로운 물의 시대, 희망으로 흐르다

Chapter 1

FLOW

국민 곁에 존재하는 K-water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흐르는 삶과 사람, 지역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Chapter 2

ON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움직임,
K-water가 실현하는 녹색신산업
분야를 소개합니다.

Chapter 3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K-water의 희망찬 스토리,
유익한 물 정보 등을 모았습니다.

♥ 67페이지의 해피뉴이얼, 해피리뉴얼 웹진 EVENT를 놓치지 마세요! ♥



CHAPTER 1

FLOW



물과 함께 흐르다

대전과 동행한 지 50년,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지역상생을 이루어 나가는 대청댐지사의 소식과
대전을 대표하는 3대 하천 중 하나인 유등천을 따라 흐르는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FLOW

버드나무 흐드러진 대전의 유등천을 따라 걷다

유등천은 갑천, 대전천과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3대 하천이다. 금산군에서 시작해 대전 중구를 지나 갑천으로 흘러든다. 과거에는 비옥한 곡창지대를 이루었고, 지금은 9km에 이르는 산책로 등으로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자리한다. 예로부터 버드나무가 많아 버드내로 불리며 현재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구분 짓는 경계가 되고 있다.

몸과 영혼을 모두 비옥하게 만드는 유구한 흐름을 간직한 유등천을 따라 대전의 이모저모를 만나보자.

글 김영은 사진 김은주





유등천

버드나무가 흐드러진 유등천은 주거지와 가까이 어우러져 있어, 많은 주민들이 산책 등을 위해 찾는다.

SPOT 1

버드나무가 있는 물가, 유등천

유등천(柳等川)의 '유'는 '버들 류(柳)'를 사용한다. 유등천 주변에 흐드러진 버드나무가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버드내 또는 유천(柳川)이라 불렀다. 유등천의 기록은 조선시대 지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당시에는 유포천이라 불렀다.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를 보면, '유포천은 유성현 동쪽 20리에 있는데, 전라도 진산현 경계에서 발원한다고 적혀 있다. 유등천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1872년 지방지도(공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해진다.

유등천 여행은 대전의 서구 복수동에서 시작했다. 복수동은 대부분 주거지다. 마음 먹으면 한 걸음에 달려갈 정도로 유등천과 가깝다. 그래서 유등천변은 주민들의 일상으로 북적인다. 오래 전 버드내로 불렸던 만큼, 복수동 유등천 곳곳에서 버드나무가 즐지어 있다. 8m에

이르는 거대한 버드나무가 존재하기도 하고, 앙상한 가지의 버드나무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것들은 겨울 초가지 노란 잎을 간직하곤 한다.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백로와 왜가리, 할미새, 흰뺨검둥오리, 뱀새 등도 자주 모습을 내비친다. 세찬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후드득 떨어지는 버들이 힘찬 유등천을 따라 흘러 흘러간다.

유등천에서 유명한 것은 비단 버드나무뿐만이 아니다. 주거지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430년의 세월을 간직한 느티나무를 만나게 된다. 높이 15m, 뿌리 둘레 8m에 이르는 자태에는 장엄한 기운이 서려있다. 오랜 세월 나무 밑동이 썩는 시련도 겪었다. 다행히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되며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 지금은 두쪽의 몸으로 나누어져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느티나무는 일생을 거쳐 우리에게 말하는 듯 했다. 몸이 두쪽 날 때까지 삶을 지키고 서로 의지하라고.



자연을 품은 도시, 도시를 품은 자연

유등천은 대전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경계를 짓는다. 1970년대 이전에는 유등천이 대전시의 외곽이었지만 곧 드넓은 논밭이 주거지로 바뀌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서대전이 급속히 도시화를 이루었다. 유등천은 충남 금산 일대의 월봉산에서부터 흘러들어 대전까지 이른다. 금산 진산지역의 작은 물길들이 모여 유등천이 되고, 서구 둔산동을 지나 대전천에 흡수된 뒤 갑천으로 유입된다. 그렇기에 유등천은 중구와 서구를 구분 짓는 경계이기도 하다.

복수동 느티나무를 뒤로 하고 유등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갑천으로 유입되는 길목에 한밭수목원이 있다. 봄이나 가을처럼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수목원만큼이나 겨울의 수목원도 매력이다. 겨울잠에 폭 빠진 동식물이 깨어날까 소곤소곤 걷는 모습은 마치 모두가 고요히 잠든 새벽을 거닐 듯 고즈넉한 매력이 있다. 한밭수목원은 정부대전청사와 과학공원의 녹지축을 연계한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이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 종과 자연 체험학습의 장, 도심 속 휴게공간 등 다채로운 공간이 꾸려져 있어 제대로 보려거든 하루가 족히 걸린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심 전경과 함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한밭수목원 주변으로는 대전예술의 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열대식물원, 조각공원 등이 있어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들이 두루두루 자리 잡고 있다.



12:00

한밭수목원

도심 속의 한밭수목원은 정부대전청사와 과학공원의 녹지축을 연계한 전국 최대의 인공수목원이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다채롭게 느껴지는 곳이다.

이용시간

하절기(4월-9월) 06:00-21:00
동절기(10월-3월) 08:00-19:00

SPOT 2



걷고 싶은 길, 달리고 싶은 길

2023년 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를 통해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 도시에 선정되었다. 대전을 대표하는 엑스포 과학공원부터 한밭수목원, 미디어파크 등이 야간관광의 중심지다. 한밭수목원에서 갑천을 끼고 반대편에는 야경명소로 알려진 한빛탑, 엑스포과학공원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엑스포다리가 명관이다. 1993년 대전 엑스포(EXPO) 개최 당시 행사장 앞 갑천에 설치된 엑스포다리는 보행용 다리로 만들어졌다. 아치 도장, 교량상판 방수 도장, 보도 우드데크 설치 등 지난 2009년 환경개선을 통해 걷고 싶은 다리로 탈바꿈하며, 시민들에게 또 다른 야경 명소이자 쉼터가 되고 있다. 야간 조명은 매주 금~일 밤 11시까지 켜진다.

해가 짧은 겨울이라 유유히 걷다 보면 금세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지겠지만, 자전거를 좀 탈 줄 안다면 대청호까지 라이딩에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한다. 대전천, 갑천, 유등천 모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자연을 벗 삼아 대청호까지 라이딩이 가능하다. 보통 라이딩 코스로는 한밭수목원에서 대청댌 물문화관까지로, 약 22km이며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 대청공원을 지나면 대청호가 한눈에 펼쳐지고, 잠시 쉴 만한 곳으로 물문화관이 있다. 더불어 야간에는 대청교에서 보는 대청댌의 야경도 놓칠 수 없는 경관 중 하나다. 水

SPOT 5

16:00

대청호 오백리길

대청호 오백리길은 대청호 주변을 따라 마을과 하천을 연결한 둘레길이다. 대전시(동구, 대덕구)와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걸쳐 약 220km에 이르며, 총 21구간의 수변 생태문화 탐방길로 알려져 있다.

대청댌 야간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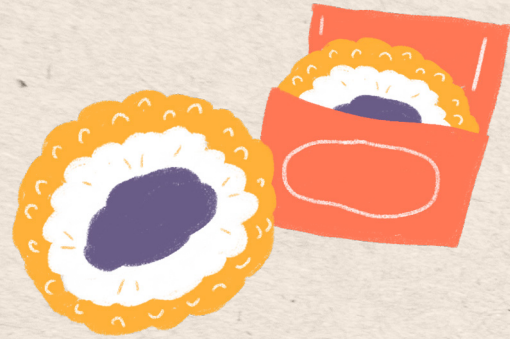


▲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놓인 다리로, 한밭수목원과 엑스포 과학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다. 해가 지면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아 명소로 꼽힌다.
▼ 눈 덮인 대청호에서 만난 일출 전망



로컬 문화 엿보기

빵과 과학의 도시, 대전 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전이 많이 변했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1980년대까지만해도 온천관광지지만 알았던 곳이 이제는 빵의 도시, 과학 도시라 불리며 새로운 타이틀을 가진 도시가 되었기 때문. 향긋한 빵내음과 과학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전.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글 김영은 참고 KBS 뉴미디어 채널 크럼



온천 관광지에서

첨단 과학 도시로!

충청권역 제1의 도시, 국토의 중부와 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 한국 최대 이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학·연구도시 등... 대전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많다. 그중에서도 과학 연구도시는 대전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시각을 선사한 수식어 중 하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전 유성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천관광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혼여행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포화 상태가 된 서울의 홍릉 연구단지를 대신할 도시로 대전이 지목됐다. '제2학원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대전에 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과학 연구도시라는 이미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전이 과학 연구단지로 선정된 이유는 부지 안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편리한 교통 입지와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큰 요소가 되었다. 이후 1993년 대전 엑스포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까지 갖추면서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 연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대덕연구단지에는 많은 공공 분야 과학기술 관련 연구 시설이 모여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이어 K-water, 한국조폐공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들과 고등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빵의 도시가 될 운명이었다



▲ 대전을 대표하는 빵 브랜드 '성심당'의 초창기 모습 (1967년 대전 은행당)
출처: BnRmagazine.com



대전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전 관광객의 추천 여행지, 선호 음식, 선호 기념품 등 모든 리서치에서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빵집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의 지역 빵집은 왜 유명세를 치르게 된 걸까? 대전이 빵의 도시가 된 이유에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는 설이 강력하다. 과거 대전은 1960~1970년대 주식량 중 하나였던 밀가루를 공급하는 유통지 역할을 했었다. 내륙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 실제로 한국전쟁 후 원조받은 밀을 보관하고 전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대전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지역보다 밀가루를 구하기 쉬웠고, 자연스럽게 빵이나 칼국수 등의 밀가루 음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대전은 타지역에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이 많다. 그렇다 보니 프랜차이즈와는 차별화된 개인이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전반적으로 개인 빵집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 경쟁력을 위해 빵의 맛과 퀄리티가 높다는 평도 있다. 대전은 이러한 대전만의 특색을 활용해 빵 축제를 개최하는 등 빵의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행사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로써 대전의 지역 빵집들은 로컬 문화를 대표하고 하나의 특색으로 자리 잡아 대전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되었다. 



물길 따라 만난 대전 사람들

예로부터 물길 근처로 촌락이 생겨나고 도시가 발전했다. 물가에 산다는 건 어쩌면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대전 속 물 좋은 곳에 사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전과 물 그리고 삶의 이야기.

글 문수민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김하진 양조사

로컬 재료로 만드는 전통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리 전통주 막걸리. 대전에는 이곳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막걸리를 빚는 사람이 있다. 바로 호텔 웨프 출신의 양조사, 김하진 대표다. 김하진 대표는 대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호텔 재직 시절을 제외하고 대전을 떠난 적이 없다. 양조장은 물 좋은 곳에 터를 잡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전통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김하진 대표는 양조 작업을 할 때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외국 어디와 견주어도 깨끗한 물이라 술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김하진 대표. “풍부한 수원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전에서 양조장을 운영해 물 걱정 없이 술을 빚고 있어요. 또한 대전은 전국 곳곳의 양조장을 자주 방문하는 저에게 어느 지역이라도 2~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이라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대전 진잠 쌀·유성 배로 만든 지역 술 썩크레-배여유



이용원 편집장

우리 동네 하천을 소개합니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전에 터를 잡고 지역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이 있다. 대전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법한 그 이름, <월간 토마토>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대전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지금은 잡지뿐 아니라 대전의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단행본, <대전여지도> 시리즈도 함께 출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대전의 소식을 전하면서 수많은 명소들을 접해온 이용원 편집장은 관광객들에게 대전천, 갑천, 유등천 등 3대 하천에 꼭 가보라고 추천한다. 최근 상류를 중심으로 답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많아져 즐거운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 “대전에 오래 머무른 외국인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세계 어디에도 도심 한 가운데에 큰 하천 3개가 흐르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더라고요. 저도 대전천 상류에 살고 있는데요. 하천 옆을 산책하는 일이 무척 즐거워 자주 이용합니다.”

▲ 이용원 편집장이 주로 산책하는 대전천 상류로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좋은 물로 내리는 향긋한 커피

대전 토박이로 대전에서 나고 자란 정상우 바리스타는 2019년에 카페를 창업해 방문객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고 있다. 1인 카페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문부터 음료 제조까지 모두 정상우 바리스타가 도맡아 하고 있다. 매일 좋은 물로 커피를 내려야 하는 그에게 K-water는 늘 고마운 존재다. “대전은 정적이고 은은한 매력이에요. 게다가 갑천이라는 강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강처럼 반짝이는 윤슬을 감상하며 조깅할 수 있고,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정상우 바리스타의 카페 내부.



정상우 바리스타



특별 이벤트를
제공할지
대청댐지사

대청댐지사



서로가 힘이 되는 대청댐지사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2월,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기록하기 위해 대청댐지사에 수(水)타벅스가 출동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며 올해를 돌아보고 다가온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글 문수민 사진 김은주 영상 남건모



지역의 안전한 물관리를 책임지는 대청댐지사

대청댐은 과거 댐이 만들어질 때 행정구역이었던 충남 대덕군과 충북 청원군의 앞 글자를 각각 따 붙여진 명칭이다.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생겨난 곳이 바로 대청호이며, 댐을 보호하듯 둘러싼 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대청호는 저수량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호수다. 대청댐은 홍수와 가뭄 조절뿐만 아니라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논산, 공주, 계룡 당진, 부여 등 12개 시군에 걸쳐 용수를 공급하며 그 양은 1,649백만m³/년에 달한다. 또한 시설용량 9만kw의 수력발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20만 명(4인 가구 기준 5만 가구) 정도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같이 대청다목적댐은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조절, 무공해 수력에너지 생산, 생활·농·공업용수 공급 등 지역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청댐지사는 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홍수 및 가뭄 재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수질 조사 및 개선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활동, 레저 공간 조성 등 댐 주변 지원 업무도 책임지며, 지역민들이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찬바람 속에 갖는 따뜻한 휴식

겨울바람이 쌀쌀하던 12월의 어느 날, 대청댐지사에는 찬 공기를 가로지르며 핑크색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정적인 댐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는 대청댐지사 직원들을 위해 '수(水)타벅스가 간다' 커피차가 도착한 것. 이번 수(水)타벅스 이벤트는 K-water 대전 이전 50주년 기념으로 대전의 터줏대감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대청댐지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번에는 특별히 겨울 간식이 준비되었다. 겨울이면 두 손 가득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겨울철 최고의 간식, 호빵이 준비된 것. 겨울날, 씹싸름한 커피와 달콤한 호빵의 궁합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다. 찜기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은 보는 것만으로도 대청댐지사 직원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유역환경과 김예린 사원은 '수(水)타벅스가 간다'를 통해 처음 접한 커피차가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따로 시간 내어 얼굴 보기가 힘든 직원들도 커피차 이벤트 덕분에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던 저희 대청댐지사 직원들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음료 메뉴가 다양하고 호빵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랑 다 같이 오손도손 먹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고객지원과 박현주 대리가 말을 이었다. 특히 이번부터는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볼 수 있는 롤링페이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청댐은 대전의 OO이다'라는 주제로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본 종이 위에는 희망, 사랑, 비타민 등 우리 삶에 원동력이 되는 단어들만 기록됐다. 롤링페이퍼 너머로 대청댐을 생각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투명하게 담겼다. **水**



대청댐지사 전자통신과
이해성 과장

달콤한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저희 대청댐은 지역의 용수 공급, 홍수 및 가뭄 조절과 수력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다목적댐입니다. 저는 대청댐지사에 올해 처음 부임하게 되었는데, 올해 저희 지역에 큰 홍수가 있어서 다 같이 대응하며 직원들 간의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다른 지사에도 이 이벤트를 추천하고 싶은 정도예요.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4년에도 대청댐지사 직원들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청댐지사 파이팅!

www.kwater.or.kr/for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대청댐은 대전의 ○○○다



대청댐지사

롤링페이퍼

* 대청댐지사 직원들이 손수 적은 롤링페이퍼입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든다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로 녹색산업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산업과 함께 기후테크(Climature Tech)*를 포괄합니다. 환경보호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한 키워드, 녹색산업. 그 첫 번째 이야기, 그린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또는 기후변화 회복력을 증대시키는 분야

ON

신재생에너지 그 중심에 '그린수소 에너지 Green Hydrogen Energy'



Green Hydrogen Energy

전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신기후체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화석에너지의 주요 대체재 중 하나로 수소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그린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로 주목받고 있다.

글 편집실 자료 K-water

인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다량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의 평균온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전례 없는 기후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2023년 3월 20일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년~1900년)에 대비해 1.09°C 상승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는 화석에너지의 주요 대체재 중 하나로 수소가 떠올랐다. 수소에너지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한다. 이때 부산물로 오직 순수한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와 연료전지만 있다면 전기에너지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수소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북부지역에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얻은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r to Gas)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33개소) 미국은 2030년까지 수소 자급률 100%를 목표로 친환경 생산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



급하고, 수송용 연료의 30%를 그린수소와 메탄 등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국은 수소연료 전지 핵심 부품의 관세율을 인하해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세계 최초로 액상 수소 저장 기술을 활용해 수소를 수입하는 등 해외의 수소를 대량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국가	전략
독일	그린수소 자급 생산 및 해외 공급망 확보
미국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활용한 시장 활성화 및 생산단가 절감
일본	생산단가 절감 및 해외 공급망 확충 병행 추진
중국	국가 주도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공급 확대
호주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 생산 집중 투자 → 동북·동남아 국가 수출
한국	청정수소(그린, 블루)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공급망 확충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그린수소 산업



수소의 종류와 그린수소의 이모저모

수소는 수소차, 중·대형 발전용,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에 활용할 수 있고 기존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이나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수소는 대용량으로, 손실 없이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액체나 기체 형태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천연가스의 3배, 휘발유의 4배라 활용가치가 높다.

수소는 생산 방식과 생산과정에서의 CO₂ 배출 정도에 따라서 색상으로 분류한다. 원자력으로 만드는 핑크수소,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 수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그린수소는 수력,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에서 얻은 전력을 활용해 수전해(水電解) 과정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이다.

수전해란, 정제된 물(순수)에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그린수소' 핵심 기술은 수전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전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알카라인, PEM 수전해 기술을 위주로 상용화가 되고 있다. 알카라인 수전해는(AEC) 알칼리 전해액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 오래 연구가 진행된 만큼 안정적이라는 평이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시스템 대용량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 고분자전해질 수전해(PEM)는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수소차단성이 우수하여 안정성에 유리하다.

정부는 2022년 7월에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 청정수소 교역 확대 및 수소 신산업·신시장 창출,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수소 원료 생산 등을 명시하며 수소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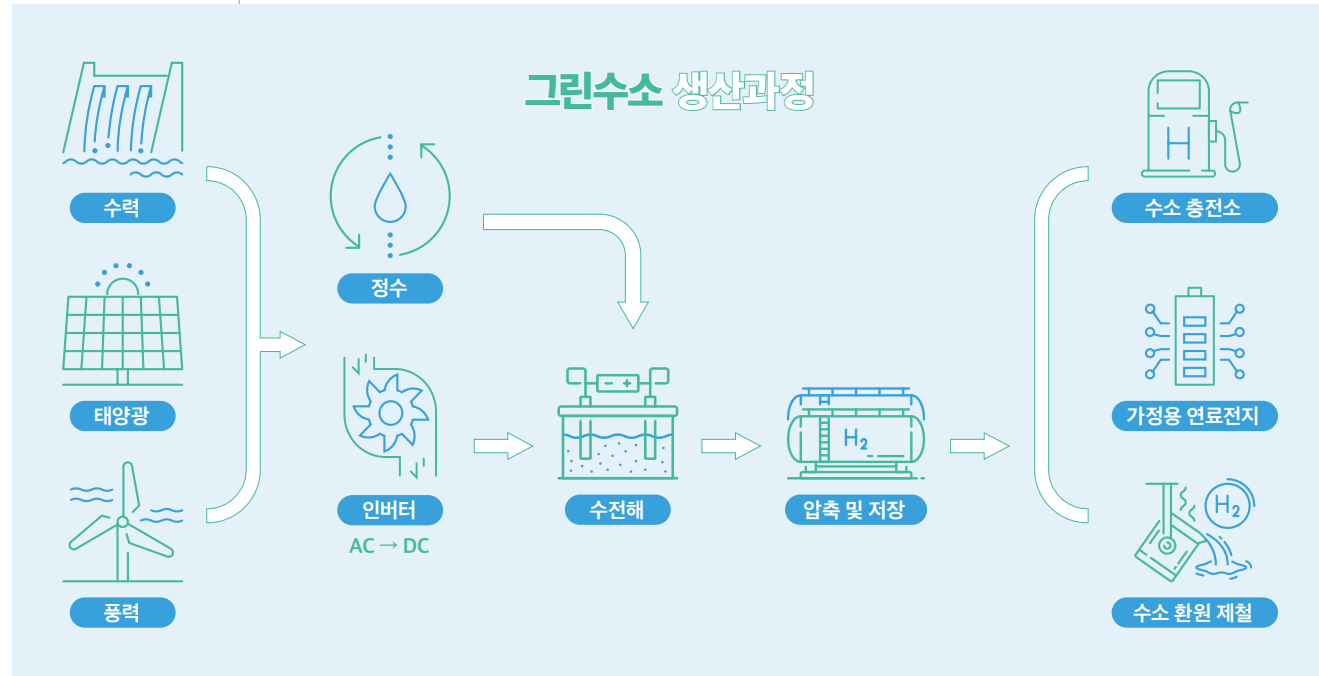
이처럼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K-water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력, 수상태양광 등의 물에너지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연구 경험을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일조하고 있다. K-water는 국내 최초로 소수력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인 성남 광역정수장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050년까지 연간 1만 2,000톤 생산을 목표로 국가 수소 경제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남 광역정수장은 팔당댐에서 성남 광역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함으로써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일 수소차(승용차 기준)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성남 그린수소 실증시설의 성공적인 준공을 기반으로 K-water는 그린수소 사업분야를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안산시 수소인프라

구축 사업은 풍력을 활용해 일 244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K-water는 청정 물 에너지 개발 및 수소산업을 확대하고,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한편, K-water는 세계 최초로 수소저장합금 연구를 시작한 스위스로잔연방공대(EPFL)와 이를 활용한 수소저장시스템 실용화에 나선 스위스의 GRZ(GRZ Technologies Ltd)사와 국제공동연구개발 R&D 협약을 맺고 산업경쟁력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K-water는 상용화 초기 단계인 PEM 수전해 시스템의 기술력을 확보, GRZ사의 독자적인 수소저장합금(메탈 하이브리드) 기술과 연계하여 통합형 수소 생산·저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통합 시스템 확보로, 수소 수송 및 활용(연료 전지 및 수소 전기 자동차)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수소 관련 전주기 기술적 진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수소에너지 정책과 K-water의 그린수소



그린수소 미래를 여는 푸른 기업

BTE&지필로스

K-water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의 역량에 주목해보자.

글 문수민 사진 김은주

비티이



&

주식회사 비티이(BTE) 수소연료전지의 세계 진출을 꿈꾸며

K-water는 미래 에너지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비티이(BTE)는 사업 초기부터 K-water의 지원을 받아 다목적 일체형 수소충전장비를 개발했다. 이어 CES2023에 다목적 일체형 수소충전장비와 수소 연료전지 UGV를 출품하여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대전에서 장려상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는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물산업 분야에서 특특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비티이(BTE) 심규정 대표는 K-water의 공정한 기회 제공 덕분에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비티이(BTE)가 개발한 '다목적 일체형 수소충전장비'는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지게차, 드론, 자전거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들을 충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센서와 충전 용기의 압력,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충전 속도 및 흐름을 제어하고, 최고 수준의 제어기술을 탑재해 제품의 안정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다목적 일체형 수소충전장비의 파일럿 개발과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 등 해외시장의 현지 협력사 발굴과 시장별 특성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티이(BTE)가 K-water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다목적 일체형 수소충전장비.



지필로스(G-Philos) 수상태양광의 힘을 수소 에너지로

지필로스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K-water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형 취수장 내에 수전해 시스템 구축 및 실증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유했던 기술을 적용하며 지필로스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 나가고 있다.

지필로스는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사회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변환장치 전문 기업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연료전지시스템 보급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필로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수전해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연료전지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발전의 기술력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오늘날, 그린수소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 지필로스의 행보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필로스



그린수소로 만들어 나가는

청정 국가 스위스

SWITZERLAND

유럽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 스위스는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보물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 이슈를 꼭 고려한다는 스위스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선택한 그린수소 이야기와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 이야기를 전한다.

글·사진 김영은

적극적으로 그린수소 상용화를 이뤄 나가는 스위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정받으면서 스위스 또한 활발한 탄소중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위스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그린수소다. 스위스는 라인강(Rhein)의 수력발전소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확보해 생태계 주변 확대와 함께 산업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 에너지기업 악스포(Axpo)는 지난해부터 라인강에 위치하고 있는 에글리사우-글래펠덴(Eglisau-Glattfelden) 수력발전소에 그린수소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완공 시 약 2.5MW의 규모로, 연간 약 35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산된 그린수소는 수소 공급업체들을 통해 충전소 네트워크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스위스 도로 운송 부문에서 연간 150만 리터 이상의 디젤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수소는 특히 산업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 친화적 에너지원 중 하나로, 스위스의 그린수소 밸류체인 확보는 유럽연합과 기타 국가의 탈탄소화 전략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 라인폭포

라인강 에글리사우-글래펠덴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라인강은 375km로, 스위스 최장 길이의 강이다. 라인강은 스위스를 거쳐 독일, 네덜란드와 이어지며 총길이는 1,230km에 이른다. 유럽에서 가장 큰 폭포인 라인폭포가 바로 이곳 라인강에 존재한다. 폭포의 높이는 약 23m지만 150m 폭의 강줄기에서 힘차게 물이 쏟아져 흐르는 광경이 펼쳐진다. 여름철이면 알프스의 눈이 녹아 초당 700m³의 물이 쏟아진다. 라인폭포를 감상하는 스팟은 총 세 군데에 포진되어 있다. 그중 뵘르트 성은 현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상 스팟 중 하나로,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며 폭포를 조망할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폭포 가까이 갈 수도 있다. 뵘르트 성 왼편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성 옆에는 라인폭포 관광안내소가 있다.

①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에글리사우-글래펠덴 (Eglisau-Glattfelden) 수력발전소





Where to go?



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

2

인터라켄

도시보다 마을에 가까울 만큼 작은 규모지만 이곳에는 늘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산악철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에서 파리나 베를린까지도 갈 수 있어 스위스 여행 중 융프라우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 배낭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로 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산악열차를 타면 그린델발트, 라우터부룬넨 등 융프라우로 향하면서 만나는 마을들을 여행하기 좋다. 이러한 이유로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며, 유람선이나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경험할 수 있다.



1 인터라켄

1

명품 시계의 고장이자 문화유산의 도시

샤프하우젠



라인강변에 위치한 샤프하우젠 풍경

라인강에서 가까운 여행지를 찾는다면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을 추천한다. 샤프하우젠은 라인강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약 8만 1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다. 명품 시계 브랜드로 유명한 IWC의 고향이기도 해, 시계의 로고 밑에 샤프하우젠 지역명을 발견할 수 있다. 샤프하우젠 도시 속에는 총 35개의 건물이 스위스 중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라인폭포를 감상하기 위한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머무른다.



그린델발트



3

동화 속 풍경이 펼쳐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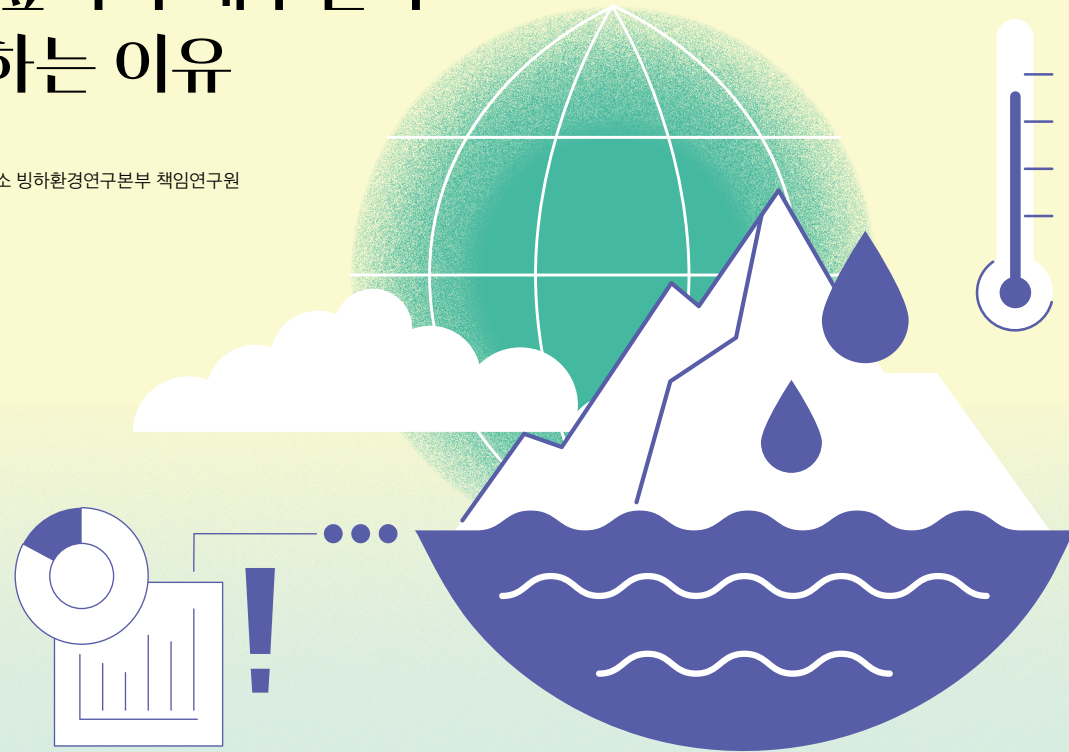
그린델발트

인터라켄까지 왔다면 그린델발트(Grindelwald) 여행을 놓칠 수 없다. 인터라켄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융프라우까지 오르기 전, 동화 속 마을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곳을 여행한다면 샬레에서 꼭 묵어보기를 권한다. 샬레(Chalet)는 알프스 기슭의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위스의 전통가옥이다. 목재 건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만큼 추위에 대비한 이중창과 넓고 튼튼한 지붕이 특징이다. 인기가 많은 샬레는 1년 전에 예약해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여름철이면 온통 초록으로 물든 초원에 소들이 거닐고, 겨울이면 소리 없이 쌓인 눈으로 가득 찬 극명한 대비가 또 하나의 볼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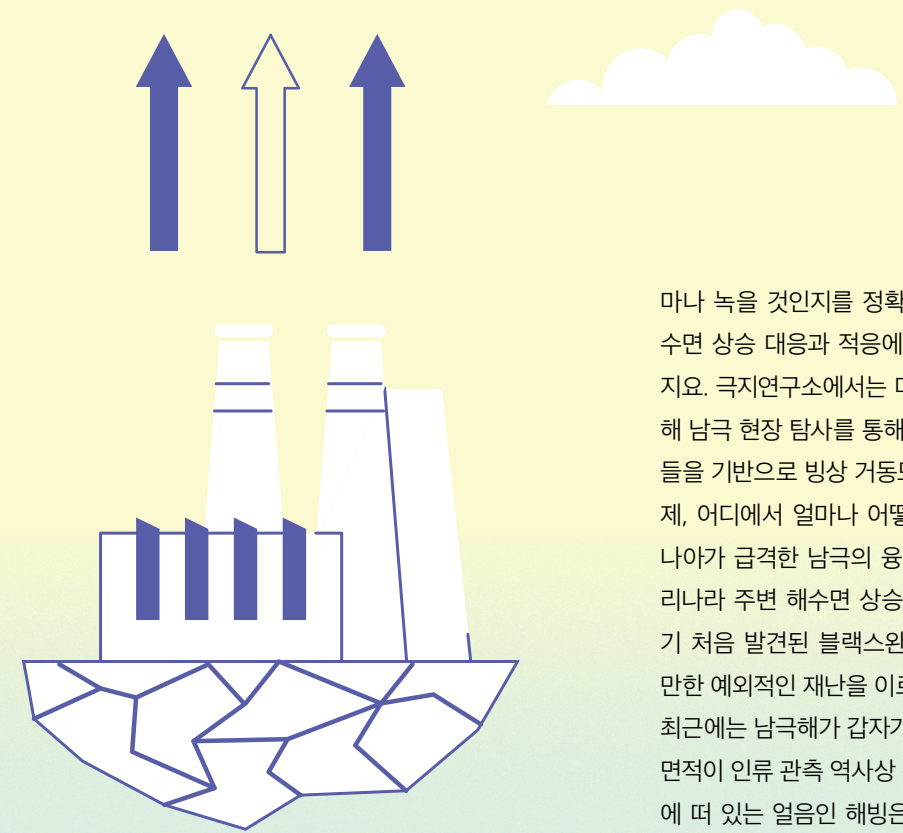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인천 앞바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

글 진경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남극의 녹은 물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얼음 대륙 남극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미지의 땅이지만, 다른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 때문에 17,000km나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남극은 전 세계 60%의 담수를 저장하고 있는 얼음 냉장고이며, 지구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중 '물'이 얼어있는 권역 빙권(氷圈)을 대표합니다. 남극 대륙은 땅 위에 평균 2천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위 얼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다 바다에 이르면 부력 때문에 녹지 않고 빙하와 연결됩니다. 이후 물에 떠 있는 수백미터 두께의 '빙봉'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구조를 형성하며 멈추게 되죠. 빙봉은 '남극의 보호막'으로, 남극대륙 위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외부에서 오는 따뜻한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남극에까지 미치게 되어 남극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따뜻해진 바닷물이 빙봉을 녹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가장 빨리 녹고 있는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 지역에서는 연간 2km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얼음이 흘러내리고 있죠. 매년 약 5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이츠에서 녹은 500억 톤의 얼음은 연간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운명의 날 빙하'라고도 불립니다. 빙봉이 다 깨져 스웨이츠 빙하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모두 녹게 되면,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을 65cm가량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남극 지역 빙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는 5.3m의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인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불리는 거죠. 남극의 얼음이 녹은 물은 남극 주변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춥니다. 지구의 중력·회전·변형



효과 때문에 얼음이 유실된 지역 해수면은 오히려 낮아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열대 및 중위도 지역의 해수면을 높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남극이 녹아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1년도에 출간된 IPCC 6차 보고서에서 따르면,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못하는 고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2100년 인천의 해수면은 2.42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중 남극 얼음 유실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1.13m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60년부터는 남극 빙상의 용해가 인천 해수면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래 온난한 기후에서 남극의 용빙이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남극은 전 세계 해수면을 57m 이상 높일 수 있는 막대한 얼음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극 어느 지역이 언제, 얼

마나 녹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해수면 상승 대응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극지연구소에서는 미래의 남극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남극 현장 탐사를 통해 관측 자료를 획득하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빙상 거동모델을 활용하여 남극 얼음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녹을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급격한 남극의 용빙이 야기할 수 있는 미래와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상승, 블랙스완 기후재난 전망(17세기 처음 발견된 블랙스완처럼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예외적인 재난을 이르는 말)을 산출하죠. 최근에는 남극해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남극 해빙(海氷) 면적이 인류 관측 역사상 전례없이 축소하였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인 해빙은 녹아도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남극 해빙 면적 축소는 지구 반사도 감소로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며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 빙봉·빙상 용빙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빙에 의한 선박 좌초 및 높은 파도에 의한 연안 기반인프라 훼손을 야기할 수 있고, 어장에 큰 영향을 주는 생태계 파괴 또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온난화의 영향은 극지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남극 장보고 기지 주변 해빙 두께 감소로 인해 비행기를 활용한 남극 입국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 활동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기후 위기 시대에 온난화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일부를 잃고 국제사회에 국가의 존폐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키리바시, 투발루 등 남태평양 섬나라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 특히 해수면의 상승은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미래세대가 대응을 강화하고, 자연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딱 필요한 만큼만!

푸드 다이어트 ON



올해는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ON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대량 식량 생산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푸드 다이어트 챌린지로 건강한 환경과 내 몸을 만들어 보세요.

글 전해정

대한민국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매일 약 4백 70만 톤. 그중에서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합니다. 연간 4인 가족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724kg CO2e에 달하며, 이는 소나무 148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동일하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버려질 법한 음식들을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자투리 재료를 모아 요리하거나 양파껍질, 파 뿌리 등으로 육수를 만들어 보세요.

둘째,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 식자재를 올바르게 구분하고 유통기한을 고려해 식재료를 구입하면 시간이 지나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먹거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 오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일반 쓰레기와 구분해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공식품이나 수입 식품을 줄여 탄소발자국을 줄이거나 육식을 줄이고 채식하는 등의 방법도 과도한 식품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푸드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65페이지의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통해 실천 내용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월 20일 **선물 발송일** 2월 10일경

※ 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CHAPTER 3

HOPE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지역상생을 실현하며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여는 K-water의 이야기와 다양한 물 정보를 만나보세요.

HOPE



1월호 웹진에서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용담댐

지속가능한 로컬, 지역과 동행하는 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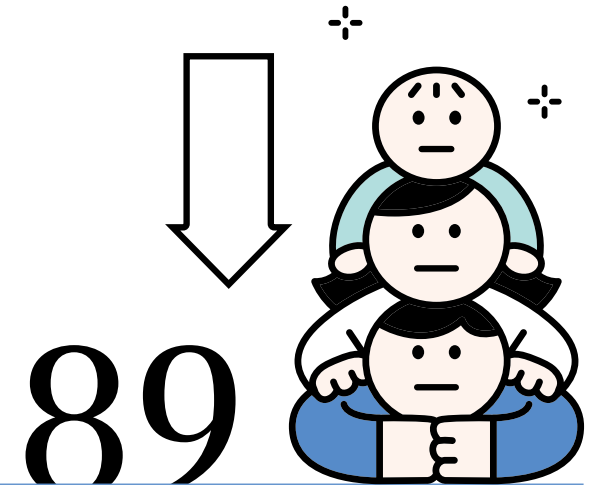
K-water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댐 기능 전환을 통한 지역 활성화, 물복지 실현 등 뿐만 아니라 댐 주변 지역의 미래인재를 성장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소멸 극복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다짐이다. 지역문제 해결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K-water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 자료 K-water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노력

지역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0명대 합계출산율과 총인구 감소 등 초고령화 시대로의 전환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으로 89곳을 지정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경남 거창군, 전남 영암군, 충남 서천군 등을 비롯해 부산 동·서구, 대구 등의 대도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지역공동체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축소 지역, 쇠퇴 지역을 넘어 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해 공정, 자율, 희망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3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 지역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경남 거창군, 전남 영암군, 충남 서천군 등을 비롯해 부산 동·서구, 대구 등의 대도시 포함한 89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 지역 지정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3)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한편, 2024년은 K-water가 대전으로 본사를 이전한 지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반세기 동안 지역상생 협력을 이끌며 대전 시민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함께 해왔다. 특히, 지역 살림에 있어 K-water의 역할이 중요했다. KISTI의 산업시장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K-water는 대전 지역 기업 중 매출액 2위를 기록하며 4조 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K-water는 지역상생 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혁신 아젠다 도출을 비롯해 과제발굴, 지역 특화형 맞춤형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이다. 더 나아가 기후·어반테크 분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지원 등 신산업 분야까지 상생 범위를 포함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도 상생 협력을 위한 K-water의 노력은 꾸준하다. K-water가 관리하는 댐 주변 지역은 오지, 산간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다. 이에 K-water 지사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K-water의 노력을 살펴보자.

지역과 주민, 댐 모두가 공존하는 댐 주변 지원 사업 및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K-water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와 생활문화 패턴 변화 등에 맞물려 댐의 생태환경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공간으로 주목받으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기회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K-water는 댐 주변 지역에서 상생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강댐의 경우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주민협업공유농장(공동 경작, 수확물 기부)을 운영했다. 관리가 필요한 유희부지를 선정하고 상시 관리인을 채용하거나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해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또한 충주댐은 장자늘 카누체험장 운영으로 '물의 도시' 충주를 이미지화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상레저 관광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댐 주변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플랫폼 또한 운영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란, 지역내 물 관련 현안을 발굴하고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참여형 플랫폼이다. K-water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각지의 댐 주변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순환경제를 이루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 8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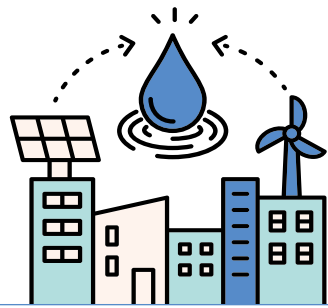
K-water 장학회
연간 예산: 연 8억 원 규모
수혜 인원: 186명(2023년 기준)

미래 인재 성장 지원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지역상생의 기회를 찾다

K-water는 댐 주변 지역 등 사업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K-water 장학회'를 출범했다. 교육 격차로 타 지역인재의 도시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댐 주변 지역 등 사업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K-water 장학회'를 출범했다. K-water 장학회는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장학금 및 성장지원을 제공받은 학생의 수는 186명으로, 2021년부터 누적된 총인원은 230명이다. 장학금 지원은 물론 1:1 멘토링으로 장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춘 진로 탐색·체험,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했다.

또한, K-water는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동참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은 지방소멸의 중요한 대안 중 하나. K-water는 2018년 5개 사를 시작으로 5년간 총 41개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ESG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의 경제발전과 친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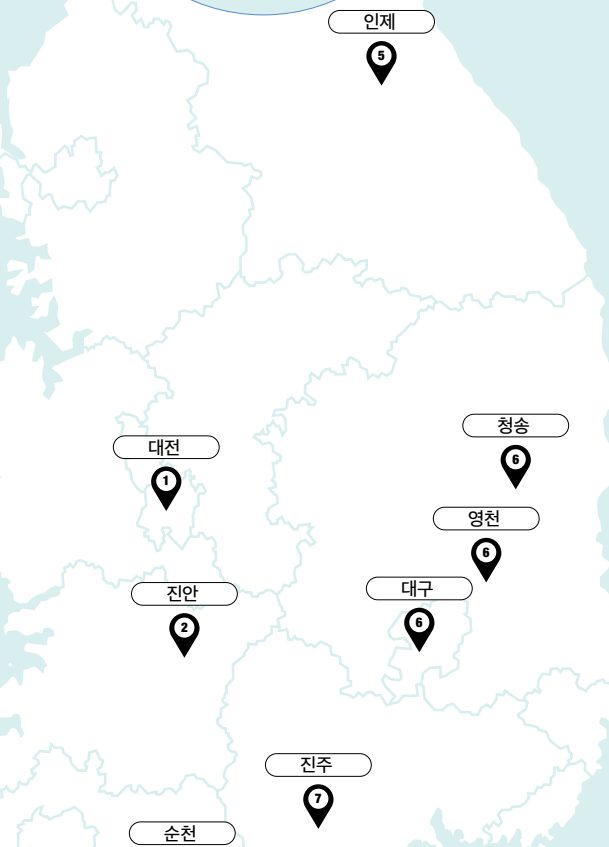
5년간 41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2018년 5개 사를 시작으로 5년간 총 4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
K-water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역상생 협력 주요 사례

<p>1 물환경처 대전</p> <hr/> <p>말생쟁이 홍수터는 이제 안녕!! 자연으로 그린(GREEN) 그림의 기억</p> <p>민간 사회공헌 연계 자연보호 활동 개발 및 운영</p> <p>대청호 활용 친환경 관광 아이템 개발 및 홍보</p> <p>지역축제, 플라마켓, 테마전시 유치 등</p>	<p>2 용담댐지사 전북 진안</p> <hr/> <p>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K-water 댐 주변 시골마을 희망이음 프로젝트</p> <p>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인프라 조성</p> <p>저탄소 기술 적용 탄소제로형 생태마을 조성</p> <p>주민공동체 고도화(마을기업 설립 등)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통해 주민주도의 실행 기반을 마련</p>	<p>3 주암댐지사 전남 순천</p> <hr/> <p>플라스틱 자원 순환경제 프로젝트</p> <p>댐 상류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플랫폼 운영. 지역, 주민, 지자체, 주암댐이 함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p> <p>제1회 순천자연순환축제 '자원모아챌린지' 행사 주관 및 자원모아챌린지 시상, 자원순환 체험, NO플라스틱카페 운영 등</p>	<p>4 전남서남권지사 전남 장흥</p> <hr/> <p>전남으로 농촌 유학 오세요</p> <p>유학 간담회 운영을 통한 농산촌유학 개선사항 발굴</p> <p>전남지역 기관 협업을 통한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협업체계 구축</p> <p>전국 농산촌유학 희망 학생 대상 '옴넛골 여름방학 캠프' 운영, 지역 맞춤 유학 체험기회 제공 및 홍보</p> <p>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홍보 및 성과 확산</p>	<p>5 소양강댐지사 강원 인제</p> <hr/> <p>인제군 관계인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 해소</p> <p>지역 청년작가, 사진가, 조형 예술가가 참여해 생태, 관광, 특산물 등 도시 마케팅 자원 디자인 및 마을 홍보 테마영상 제작해 인제군 Re-브랜딩</p> <p>서울 중장년층 퇴직자 참여로, 지역 알기 및 살아보기 탐색 여행 추진(팬슈머 양성), 체험책자 발간</p> <p>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노르딕 워킹, 팜 파티) 및 숙박시설, 관광지, 커뮤니티 센터 등 개선</p>	<p>6 성덕, 군위, 보현산댐 대구, 경북 청송, 영천</p> <hr/> <p>마을 의료버스와 가구 방문 진료, 사후 관리를 결합하여 예방적 진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p>	<p>7 남강댐지사 경남 진주</p> <hr/> <p>남강댐 그린축척 공유팜</p> <p>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국민공모로 남강댐 캐릭터를 개발해 각종 홍보물에 사용</p> <p>댐 유희부지 관리 일자리 창출 및 그린축척FT으로 마을·사회적·청년기업 협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p> <p>유희부지 관리로 인해 민원이 줄고 사회적 가치 실현</p>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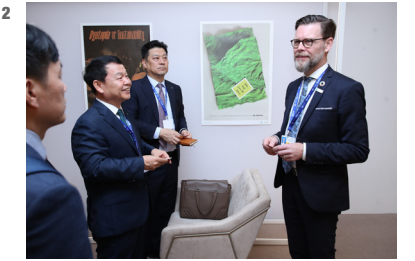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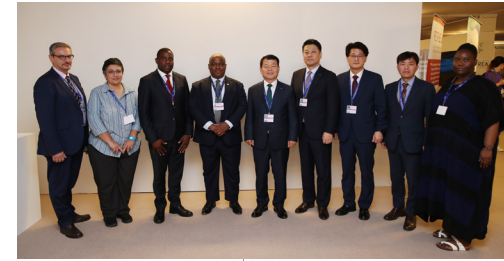


FOCUS 1

세계가 주목하는 K-water 기후대응 역량,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 성큼

K-water가 지난 12월에 두바이에서 열린 전 세계 기후변화 대표 컨퍼런스인 COP28에 참가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물관리 기관으로서 참여, 물분야 탄소 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지원, 신규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 오갔다.

글 전하영 자료 K-water




탄소중립 달성 비전을 위해 손을 맞잡다

K-water가 지난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했다. 올해로 제28차를 맞이한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의 최고기구다. 당사국총회는 이와 같은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자리다.

K-water 역시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면담을 통해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의 향후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K-water가 회장기관인 아시아물위원회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공식기관 인증을 추진하고 향후 유엔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관련 회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예정이다.

보츠와나까지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물길, 글로벌 네트워킹을 확장하다

수일간 이어진 일정에서는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12월 9일에는 물, 에너지 분야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이 한데 모여 '워터파빌리온(Water Pavilion TD6-Water for Net-Zero) 세션이 개최되었다. 물을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과 방안, 계획 논의, 수자원 공공부분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해 공유되었다. 이어 12월 10일에는 한국홍보관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도모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물관리 기술 혁신의 국제사회 확산 전략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K-water는 12월 9일 아프리카 보츠와나 국토수자원부장관을 만나 180억 원 규모의 통합물관리 사업에 단독 참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만성적인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보츠와나의 경우, 하천, 댐, 상수도 등 종합적인 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아프리카에서는 이례적으로 ODA가 아닌 현지 정부가 발주한 재정사업으로서 K-water의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석대 사장과 케펜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질관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물관리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1 K-water는 보츠와나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다.

2 기후-물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이 진행되어 다양한 의제가 오갔던 COP28 현장.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지난해 12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 행사가 열렸다. 소양강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본 풍성하고 뜻깊었던 시간을 소개한다.

글 구지희 사진 김은주

FOCU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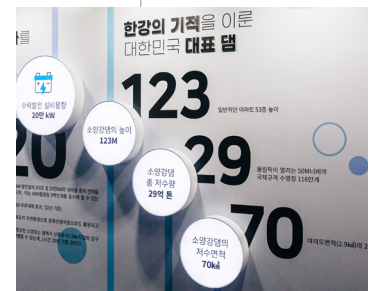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해 더욱 뜻깊은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지난해 12월 15일,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의 역사적 의의 및 중요성, 미래가치를 조명하는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여러 내빈이 자리를 빛내며, 소양강댐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소임을 맡은 앞으로의 활약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도 참석하여 그 의미를 나누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윤석대 사장은 “소양강댐은 한국 산업발전의 초석이자 홍수를 방지하는 물그릇”이라고 소개하며, “소양강댐은 지난 반세기의 경제발전과 도시 건설, 물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물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명품 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 나이와 비슷한 소양강댐 50주년 기념행사에 서니 감회가 새롭다. 소양강댐의 지난 50년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월이었다면, 다음 50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적을 만들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육동한 춘천시장은 “소양강 전체를 관광 콘텐츠화하겠다.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소양강의 맑은 물을 활용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미래 청사진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켜온 50년, 나아갈 50년

이번 소양강댐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마련된 전시관에서는 소양강댐의 건설 과정,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다시 태어난 소양강댐의 의미, 강원 수열클러스터 단지 등이 소개됐다. 소양강댐의 과거와 오늘, 미래 이야기를 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이어 소양강댐의 50년사와 기후위기 시대에 댐의 역할과 중요성을 표현하는 내용과 댐을 지켜온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다채로운 볼거리의 세레머니, 미디어 매핑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레이저 축포는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예견하듯 화려하게 현장을 수놓으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1 소양강댐 50주년을 기념하는 레이저 쇼 세레머니.
- 2 소양강댐의 건설 과정부터 의미, 미래 계획 등을 담아 전시한 행사장 전경.



MINI INTERVIEW



기존 수자원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미개발 중소 하천 유역의 적극적인 수자원 개발과 하천 예방 사업 등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22대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지흥기 님



소양강댐지사에서 1980년 1월부터 37년간 근무했습니다. 1984년 대홍수때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소양강댐이 제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K-water 소양강댐지사
최장기간 근무자 박명학 님



지금 후배들이 소양강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민의 자랑거리로서 더욱 발전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시공사 현대건설
건설참여자 위혜룡 님



소양강댐이 지금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상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K-water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박성연 님



소양강댐 덕에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이 개선되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인접 마을 주민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제군 남전리 김광수 이장

함께라 더 행복한 우리들의 식탁



고령권지사 고령수도센터
이상유 대리 가족의
연말 가족 식사



이상유 대리
(고령권지사 고령수도센터)

처제 이현애 님

아들 이민형

아내 이현주 님

장모님 전점분 님

아들 이서형

2023년의 마지막 길목, 고령권지사 고령수도센터 이상유 대리가 소중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식탁'을 준비했다. 사무소 주변의 숨겨진 맛집을 찾아, 연말 분위기가 오롯이 묻어나는 멋진 공간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저녁 시간을 마련한 것. 함께여서 감사했던 2023년을 보내고, 함께이기에 행복할 2024년을 맞이하는 가족의 행복한 연말 파티가 시작됐다.

글 박향아 사진 김은주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행복

한 해를 보내며 가장 고마운 사람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가족'이라고 답하는 이상유 대리는, 자상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든든한 사위이자 다정한 형부다. 2008년 겨울, 결혼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도 사랑하는 아내는 물론, 넉넉한 마음과 곧은 생각을 갖고 계신 장인 장모님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처제와 가족이 된다는 점이였다. "아내와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추석 명절 때 처가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는데요. '현주 남자친구가 온다고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던지... 그런데 장모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편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어색하지 않게 이런저런 얘기를 실재 없이 해주던 처제도 정말 고마웠고요. 떨어져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밥을 두 공기나 먹었어요. 사실, 장모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지금도 처가에 가면 늘 과식을 하게 됩니다. (웃음)" 물론, 처가 식구가 아무리 좋다 한들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 갖게 해준 아내만 할까. 이상유 대리는 지금도 아내와의 첫 만남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웃는 모습이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도 다 좋아 보였죠. 저에게는 잊지 못할 첫 만남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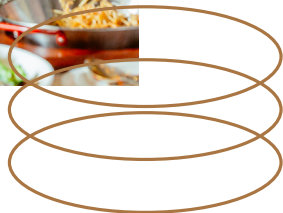
본인이 아는 가장 맛있는 음식점을 예약해서 갔는데, 하필 메뉴가 '첫 만남에서 예쁘게 먹기는 어려운 오리고기'였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이다. "남편이 워낙 순진했어요. 가게 분위기나 메뉴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맛있는 곳을 데려가고 싶었나 봐요. 사실 '이 남자는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만 만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딱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걸로 보이는 투박함 속에 솔직하고 다정함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너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고요. 3개월 뒤에 커플링을 선물 받았을 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웃음)"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존재, 가족

2008년 결혼과 함께 '부부'가 되고, 민형이와 서형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을 이룬지 15년. 함께해온 시간 중에 소중한 순간이 있을까마는, 특히 이번 한 해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낀 한해였다. 특히 아내 현주 씨는 '내가 정말 멋지고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라는 확신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했다. "올해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두 마음이 힘든 한 해였는데, 남편이 그 과정에서 저는 물론이고,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정말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아버지의 빈 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시간 속에서 항상 진심을 보여줬어요. '가족'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한 해였죠." 가족들에게 고맙기는 이상유 대리도 마찬가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두 아들,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연자이자 그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되어주는 아내, 그리고 맞벌이인 부부 대신 에너지 넘치는 두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장모님과 처제까지. "가족이 있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이상유 대리의 얘기는 진심이다.

"식구(食口)를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함께 밥을 먹는 입'이란 뜻이잖아요. 결혼해서 좋은 점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마주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이, 장모님과 처제를 향한 고마움 마음을 담아, 특별한 저녁 시간을 마련했어요." 서로가 있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2023년을 잘 보내주고, 서로가 있어 더 행복하게 채워나갈 2024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저녁 식사. 이상유 대리가 가족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다.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식탁 어땠나요?

"식구(食口)를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함께 밥을 먹는 입'이란 뜻이잖아요. 결혼해서 좋은 점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마주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이, 장모님과 처제를 향한 고마움 마음을 담아, 특별한 저녁 시간을 마련했어요."

반짝이는 조명과 커다란 6인용 테이블, 향기로운 꽃과 은은한 촛불, 그리고 나란히 둘러앉은 소중한 가족들까지, 2023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고의 식탁이 준비됐다. 화덕에 구운 피자과 스테이크, 신선한 샐러드와 파스타까지 모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진 가족만의 특별한 연말 파티가 시작됐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을 증명하듯,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는 장모님과 가족 모두를 빠짐없이 챙기느라 바쁜 이상유 대리. 오늘 저녁 식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서로를 향한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다.

부부의 첫 만남부터 처가에 처음 인사 갔던 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두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행복한 기억까지, 함께 만들어간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놓다 보니, 새삼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더욱 행복하게 느껴진다.

"어느 멋진 날' 덕분에, 가족들과 멋진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2023년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요. 2024년에도 좋은 남편이자 아들, 그리고 든든한 사위와 형부로서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해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하고, 주위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유
대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은 늘 즐거운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여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년에도 오늘처럼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날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전점분 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같이 밥을 먹는데, 오늘은 사위 덕분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들처럼 살갑게 챙겨주고 늘 든든한 우리 사위, 항상 고마워!

아내
이현주 님

부모님과 너무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처가 식구들한테도 늘 다정한 사위이자 형부가 되어주어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2023년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K-water에도 감사드립니다.

처제
이현애 님

형부가 집에서는 막내거든요. 동생이 없다 보니, 저를 막냇동생처럼 늘 아껴주세요. 저도 형부가 있어서 늘 든든한 마음이고요. 2024년에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이민형,
이서형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이모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년에는 더 자랑스러운 아들, 손자, 조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새로운 일을 맡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중압감으로만 느껴져요.”



직급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타이틀은 화려해지는 반면 해내야 하는 의무적인 역할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견뎌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도 점차 커지게 되기 마련이다. 과도한 무게감을 수시로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글 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새해가 되면 여러 변화가 생기게 된다. 새로운 부서로 이동할 수도,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맡을 수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도 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이와 동시에 부담감이 중압감처럼 다가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진하게 되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사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반갑지만은 않게 된다.

팀원이었을 때는 실무자로 내가 맡은 일만 잘 해내면 되었는데, 팀장이 되면 관리자로 팀원들의 의견도 취합해야 하고, 팀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도 직접 하게 되고, 회식을 가도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경써야 하는 일들이 점차 늘게 된다. 이럴 때 느끼는 중압감은 심리적 압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수시로 중압감이 느껴진다면, 때로는 마음 편하게 숨쉬기도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직급이 올라가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은 완벽주의와도 연결된다. 완벽주의자들은 적당한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애쓰면서 살게 된다. 특히 자기 비판적인 완벽주의가 높을 경우 객관적인 성취 수준이 괜찮음에도 자신이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더 열심히 스스로를 갈아 넣어야 할 것 같은 모호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두 번째,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더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느 정도의 약점과 미숙함이 있지만, 이 정도의 빈틈은 인간적인 매력이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지'와 같이 스스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업무를 할 때 관점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에서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면, 사소한 실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희박하다. 만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때도 항상 불안하고 긴장된다. '일이 그럭저럭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 정도로만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잘해내고 있는 상태다. 이제까지도 잘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에게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힘든 고민이 있나요? 혼자 간직했던 고민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담해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Counselor. 오미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심리 레지던트 수료,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교수 및 임상심리 수련감독자 역임 등을 거쳐 현재 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아이 설명서> 등이 있다.



Q

찬물/따뜻한 물/미지근한 물, 어떤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을까?

A

대부분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이라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 다. 특정 온도의 물이 더 좋다는 연구결과도 없다. 무더위에 몸이 지쳐 있거나 운동 직 후에는 찬물을 마시는 것이 몸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고, 빠르게 수분이 보충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찬물은 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피로를 완화해 일시적으로 몸에 활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찬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체온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위장의 혈 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평소에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찬물이나 미 지근한 물 모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천천히 조금씩 음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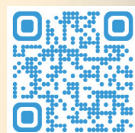
37도 이상의 따뜻한 물도 상황에 따라 음용할 경우 신체에 이로운 효과를 준다. 먼저,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인후염 등이 있을 경우 따뜻한 물을 마시면 점액이 제거되고 호흡이 개선된다. 또한 소화를 촉진시키고 체내 독소 제거, 혈당 조절, 편두통 완화 등 에 도움을 준다. 다만 화상에 유의하고 빈속에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속에 따뜻 한 물을 마실 경우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1. Sanu A, Eccles R. The effects of a hot drink on nasal airflow and symptoms of common cold and flu. Rhinology. 2008 Dec;46(4):271-5. PMID: 19145994.
- 2. 항암온열치료:포럼(hyperthermia.tistory.com)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물과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물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응모해 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ISSUE CHECK

완벽한 사람을 선망하다, 육각형인간

각기 다른 여섯 가지 특징을 완벽히 갖춘 사람을 일컫는 말인 '육각형인간'이 화제다. 날 때부터 완벽함을 갖춰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육각형인간.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 말일까?

글 전해정 참고 트렌드 코리아 2024



외모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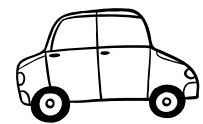
직업



성격



학력



자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이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력이나 운을 통해 인생 역전 드라마를 꿈꾸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생 첫걸음부터 완벽하며 약점 없이 모든 것을 갖춘 완성형 인간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례로 '육각형인간'이 있다. 육각형인간이란, 외모와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의 여섯 가지(다른 분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분야에 있어서 '이미' 완벽한, 약점이 없는 완벽한 인간을 일컫는 용어이다.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하는 육각형 그래프에 각 영역을 넣고 모든 기준의 축이 끝까지 꽉 찬 모습이 바로 육각형인간을 표현하는 형태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며, 차라리 타고난 완벽함을 기준으로 타인을 품평하거나 서열화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심리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에는 아이돌이 노래만 잘 하면 됐는데 이제는 노래뿐만 아니라 비주얼, 예능감까지도 모두 갖춘 '올라운더'들이 인기가 좋은 것도 한 예다. 이러한 환경은 SNS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다. SNS를 통해 완벽함을 뽐내는 이들이 늘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완벽해지길 바라는 강박에 의해 생긴 현상이라는 평이다. 매 순간 어떤 기준에 의해 타인을, 나 자신을 평가하고 좌절하기보다 고유한 매력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육각형인간이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가진 '나다움'을 찾아보자. *

K-water NEWS

2024. January

1



화성시정수장, 4차 산업기술 혁신의 리더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등대' 선정

현지 시각 12월 14일, 화성정수장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2023년 '글로벌 등대(Global Lighthouse Network)'로 선정되었다. '글로벌 등대'는 등대가 빛을 밝혀 길을 안내 하듯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화성시정수장이 전 세계 물관리 시설 중 최초로 선정됨에 따라, 상수도 디지털 전환의 시그니처 모델로서 국가 상수도 선진화는 물론, 글로벌 물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동절기 주요 시설 찾아 현장점검 시행

윤석대 사장이 지난 12월 1일, 202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제1호 지역 건의 댐인 원주천댐사업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댐 방문에 앞서 횡성원주권지사서를 먼저 방문해 횡성댐 및 송전정수장 등 주요 시설물의 동절기 위험 상황 대비 등 관리 실태도 함께 살펴봤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하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 중인 180만t 규모의 홍수방어 시설로,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온 원주천 유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댐 건설을 요청해왔다.

3



대전내 혁신기관들과 함께 '대전지역 혁신포럼' 발족

지난 12월 1일, K-water는 대전의 글로벌 혁신도시로의 도약과 대전 역량 결집을 목표로 대전 거점의 혁신기관들과 함께 '대전지역 혁신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등이 참여한 '대전지역 혁신포럼'은 현 정부의 '새로운 지방시대 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K-water는 이를 통해 대전지역 혁신 주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체적인 과제 발굴 및 실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4



충남대학교와 함께 물산업 유망기업 성장 견인

K-water와 충남대학교는 지난 12월 5일, 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NU×K-water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물산업 유망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 전주기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유니콘 기업 배출을 위한 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자회사와 함께 물 특화 'ESG경영' 속도 높인다

지난 12월 12일, K-water는 본사에서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케이워터기술(주)과 함께 'ESG 경영 확산·실천을 위한 모·자회사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언은 각 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은 각 3개 기관이 ESG 경영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선언을 초석으로 삼아 자회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ESG 경영을 도입,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6



웹어워드코리아 2023, '공공부문 통합대상' 수상

지난 12월 14일, K-water의 물정보포털(MyWater)이 한국인터넷신문가협회(KIPFA)에서 주관하는 '웹어워드코리아 2023'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웹어워드코리아는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가 4천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다양한 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K-water의 물정보포털이 '공공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전성시대를 넘어선 OTT 황금시대

언제 어디서든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돌려보거나 빨리 보기가 가능해 많은 사랑을 받는 OTT 플랫폼. 그중에서도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글 문수민

사각거리며 넘어가던 책장과 특유의 냄새가 나는 종이 만화책을 끼고 만화가게 구석에 앉아 전 시리즈를 하루 만에 독파하던 기억. 그 시절에 유년기를 보낸 이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로 남아있다. 우리 추억 속 만화가게는 200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후 만화가게의 빈자리는 집에서 컴퓨터로 편하게 만화를 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웹툰이 채웠다. 컴퓨터로 만화를 보는 시절을 넘어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것이 익숙해진 지금, 웹툰은 OTT라는 또 다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웹툰을 영상화한 OTT 작품들이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기세가 만만치 않다. 국내 진출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디즈니플러스는

강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무빙'을 공개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올해 주목받은 웹툰 원작의 작품들만 해도, 'D.P.', '마스크걸', '이두나!' 등이 있다. 지난 달에는 첫 시리즈 성공에 힘입은 '스위트홈'이 공개되었고, 네이버 웹툰 '이제 곧 죽습니다'를 원작으로 하는 '이재, 곧 죽습니다(티빙)'가 방영을 시작해 주목을 받았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2023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드라마 중 10개 작품의 시청을 강력 추천했는데, 이 중 2위를 차지한 '지금 우리 학교는' 또한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드라마에 이어 애니메이션 대작까지 줄줄이 공개를 앞둔 지금, 흥행 수표로 떠오른 검증된 스토리들의 웹툰 OTT 황금시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 하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내과에서 정신과로 이동한 3년 차 간호사 정다은(박보영)이 정신병동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마주하는 내용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실제 간호사 출신인 이라하 작가의 동명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12부작으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여○수 010-****-9684



김○미 010-****-4443



한○철 010-****-6046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2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12월호 '의류 폐기물 OFF'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1월호 '푸드 다이어트 ON'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영 010-****-0506



윤○라 010-****-3664



김○아 010-****-3600



김○을 010-****-0081

#kwater신경영선포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jeongcheol_charles_han
@oegee | @jimin_21 | @peach_sta
@lovelove28253 | @hangabbu
@dlsyd | @szszdanx | @_keemna
@e_h_yoon

Goog bye 2023! 독자의 소리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디저트 기프트콘 30명

강○호 010-****-9638	김○윤 010-****-4042	전○홍 010-****-4618	이○임 010-****-7498
안○정 010-****-7355	이○섭 010-****-2045	김○월 010-****-8709	전○혁 010-****-1561
신○환 010-****-1801	이○오 010-****-4568	송○원 010-****-3212	강○철 010-****-3725
박○란 010-****-2808	송○영 010-****-8736	함○규 010-****-9873	박○호 010-****-6321
김○연 010-****-8520	김○정 010-****-7617	장○익 010-****-3944	조○우 010-****-9964
백○영 010-****-9859	박○주 010-****-3303	김○옥 010-****-5420	김○준 010-****-3379
연○열 010-****-5421	이○걸 010-****-2023	김○희 010-****-3838	
이○근 010-****-4816	김○승 010-****-7633	김○태 010-****-3283	

이벤트 선물 발송일 1월 10일경 ※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푸드 다이어트 ON 챌린지

2023년 OFF 챌린지에 이어 올하는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ON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대량 식량 생산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푸드 다이어트 챌린지로 건강한 환경과 내 몸을 만들어 보세요.



1~6월호까지 모든 방울이 딱지를 모은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푸드 다이어트 ON 42페이지의 'ON 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일상 속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 보세요. 위의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통해 실천 내용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월 20일 발송일 2월 10일경
※ 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2024 푸른 용의 해에도 K-water와 #소통하기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이게 된다고? 한 번에 스트라이크 치는 법 | 볼링 편 | 뭉쳐서 뭐하니? : K-수포츠

뭉쳐서 뭐하니? 우리 K-수포츠 한다! 스트라이크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특별히 초대된 볼링 이선생에게 직접 배우는
볼링 스킬을 놓치지 마세요!
[#뭉쳐서뭐하니](#) [#볼링](#) [#스핀](#) [#직장인스포츠](#) [#운동](#) [#스포츠](#)
[#운동에능](#)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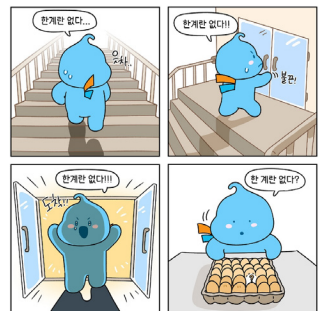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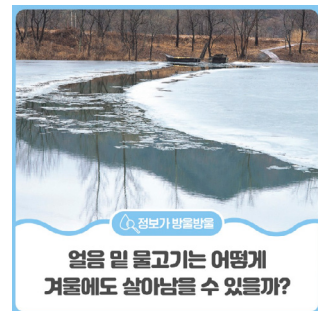
-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추운 ❄ 겨울, 얼음 밑 물고기는 어떻게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짜잔! 방울 김밥 완성
롱패딩은 겨울 필수템이지!
[#방울이](#) [#겨울](#) [#추위](#) [#패딩](#)
[#롱패딩](#) [#김밥](#) [#분식](#) [#직장인](#)
[#공감](#) [#좋반](#) [#좋아요](#)

K-water 화성시정수장, 세계 경제포럼 '글로벌 등대' 선정
K-water 화성정수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3년 '글로벌 등대'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성시정수장](#) [#글로벌등대](#)
[#광역상수도](#) [#물산업](#)

우리 삶에 한 '계란' 없다!
삶은 계란만 있을 뿐...
(LIFE IS EGG...)



리뉴얼 기념! 웹진 구독신청 이벤트 미로에서 만나는 행운의 복주머니 개수는 몇 개일까요?

HINT. Start에서 Finish까지 미로를 따라 그려보세요. 복주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이벤트 신청 방법

이벤트 참여 방법

- TALK**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1:1 채팅방에 하단 내용 입력
 - 성함,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만나는 복주머니 개수 입력

이벤트 경품 커피&디저트 교환권 20명 **접수 마감** 1월 20일 **발송일** 2월 10일경
※ 2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카카오톡 참여